

제목: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코 행사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내가 지고 가야할 십자가입니까?

- 1) 남은 인생을 \_\_\_\_\_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 2) 나를 불러주신 그 \_\_\_\_\_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 3) 내 뜻과 내 의지를 뛰어넘어 \_\_\_\_\_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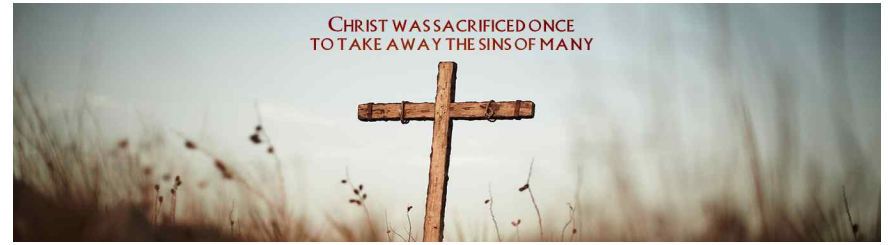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사순절 첫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President
- \* 찬양 ..... 다같이  
Praise .....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마태복음 16장 21-28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 Matthew 16: 21-28 신약 27 페이지 ..... President
- 말씀 ..... “내가 지고 갈 십자가” ..... 김성민 목사  
Message ..... My Cross ..... Rev. Kim
- 특별찬양 .....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 Lord Here I am ..... All Together
- \*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나만의 무화과 나무)

성경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무화과나무는 매우 평범한 나무여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비유와 예화로 많이 사용하셨다. 무화과나무는 여름 동안 충분히 익은 후 초가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한 번 맛을 본 수년 전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부러운 마음으로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나의 집 뒤뜰에는 한 번도 심지 못했다. 오로지 성도들이 집에 익은 무화과를 갖다가 주면 먹곤 했다.

그런데 LA로 다시 이사한 후 집 근처에 크고 푸른 무화과나무를 발견했다. 고마운 것은 그 나무가 주인집 담장 안으로 있지 않고, 담장 너머 길가에 서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언제 무화과가 열릴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만하지 않았다.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새벽예배를 다녀오는 동안 그 집 주인이 사다리 나무를 타고 올라가 익은 것부터 매일 열매를 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며 지나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 집 주인의 무화과 관리는 대단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 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한 편으로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나무는 자기 땅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다. 그러한 나에게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장 10절)고 말씀하신다. 주신 것들을 나누라는 말씀이다. 그 안에는 나의 시간과 건강, 주신 재주와 경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물질, 등...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버려두라”는 말씀이 나에게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그러우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말씀으로 들려온다. 그 이유는 나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잘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년 전 내가 살던 집 앞에 배나무의 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익은 것부터 따던 것을 생각하며 그 무화과나무 주인만 나무랄 수 없었다. 결국 나도 잘 익은 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부터는 충분히 익도록 놓아두니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소식이다. 과연 나는 잘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잘 간직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잘 간직하고만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이 따먹는 것이 싫어 어두운 새벽 일찍 사다리를 놓고 익은 것부터 따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많은 축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라고 말씀하신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2. 기도의 삶

####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 4. 2021년 달력

새해 달력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가지면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가시고 교회를 알리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더 가지고 가져서 선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5. 2월의 행사

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2월 17일(수)

### 6.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음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